

# 1930-40년대 남산 소재 경성호국신사의 건립, 활용, 그리고 해방 후 변화

안종철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중일전쟁' 발발과 경성호국신사건립
- III. 경성호국신사의 활용과 대중동원
- IV. 해방 후 호국신사일대의 변화
- V. 맺음말

## I. 머리말

경복궁과 그 앞 육조거리, 즉 오늘날의 광화문거리의 끝자락과 만나는 남산 일대는 조선왕조의 도시구조상 그 풍광적 관점에서만 주목을 받아왔다. 즉 전통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요소 중 경복궁에서 바라볼 때 편안한 안산(案山)으로서 기능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산일대의 발전은 조선말, 즉 개화기부터 본격화되었고 일제시기에 가속도가 붙었다. 일제 통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본의 종교인 신도와 불교 등이 식민지에도 그대로 이식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일본의 근대 국가가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신도체제이며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불교를 신봉했다는 관점에서 식민지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러므로 일제는 식민통치의 공간배치면에서 서울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인 남산 일대를 주목하면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요 장소로 활용했다.

남산의 북쪽, 오늘날의 명동은 비가 오면 땅이 질어지는 진고개(泥岬)로 거주지는 전통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구한말부터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거주하고 구한국정부도 이 지역에 한양공원과 장충단 등을 조성하면서 남산일대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통치기간 중, 남산일대는 조선통감부·총독부(1906-1925)건물과 조선신궁(1925-1945), 경성신사(1898-1945)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이 지역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남산을 휘두르는 도로가 개·신축되었다. 그러므로 남산일대는 식민통치가 안정화된 1930년대에는 식민통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가 되었다. 아울러 해방 이후에도 국립중앙도서관(현 남산과학도서관), 송의학원, 동국대학교 일부, 그리고 중앙정보부 대공분실 등이 즐비한 지역으로 한국 현대사의 음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였다.<sup>1)</sup>

남산지역이 갖는 역사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남산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여전히 매우 빈약하다. 남산에 대한 연구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선신궁에 대한 것<sup>2)</sup>과 이와 관련된 일제의 신사정책에 대한 것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경성부(오늘날의 서울시)에서 관리한 경성신사에 대한 중요한 연구도 최근에 발표되었다.<sup>4)</sup> 한편 남산의 동쪽기슭에 있는 공원(구 장충단공원)에 있던 고종대 설립된 장충단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나와서 주목이 된다.<sup>5)</sup> 특히 장충단의 일제시기의 운명과 장충단에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 추모사찰인 박문사(博文寺)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출간되었다.<sup>6)</sup>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에게 신사를 강요하기 위해 세워진 조선신궁이나 고종대 추모시설인 장충단, 그리고 일제시기 그곳에 세워진 박문사 등을 다룬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시설들에 대한 것과 그것들이 일제말기 전시체제기와 해방 후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이 연구는 2010년 서울학연구소 학술지원을 받아서 수행한 것입니다.

- 1) 남산에 대해 시론적인 소개로는 손정목, 2003『서울도시계획 이야기』제5권, 한울, 205-286쪽일 것이다. 남산일대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소개는 정재정·염인호·장규식, 1998『서울근현대 역사기행』, 해안, 140-150, 199-215, 282-289쪽 등을 참조.
- 2) 손정목, 1996『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 말살정책』,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김대호, 2004『1910-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건립과 운영』, 『한국사론』50 (서울대 국사학과)등을 대표적인 연구로 들 수 있다.
- 3) 김승태, 1987『일본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신사문제』, 『한국사론』16 (서울대 국사학과); 菅 浩二, 2004『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 東京: 弘文堂의 3장 등.
- 4) 김대호, 2008『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경성신사의 운영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승일 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이 논문에는 신사자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사 정리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
- 5) 이상배, 2006『고종의 장충단 설립과 역사적 의미』, 『도시역사문화』4, 서울시립박물관
- 6) 안종철, 2009『식민지 후기 박문사(博文寺)의 건립, 활용과 해방 후 처리』, 『동국사학』46.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심지어 기초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sup>7)</sup>

20세기 남산지역의 전반적인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남산인근에 건설된 다양한 공공 및 사설 시설들, 즉 신사나 사찰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남산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연구의 기초를 위해 식민지 말, 즉 전시 체제기와 해방 후에 남산의 남쪽기슭, 오늘날 용산구 용산동 2가, 속칭 '해방촌' 주변에 설치되었던 경성호국신사(京城護國神社)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8)</sup>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방 후 월남정착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sup>9)</sup> 호국신사는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던 것인데 이 글에서는 이 신사의 운명을 식민통치로부터 해방 후 진행된 변화된 면모를 함께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지역을 차지한 건물과 집단을 통해 일제말부터 해방 후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이 논문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이다.

## II. '중일전쟁' 발발과 경성호국신사건립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는 이듬해 만주국을 설립했지만 중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1930년 중반부터 일본 내에서는 대중국 정책에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주문하는 인사들이 많았다. 당시 조선에서는 1935년 조선신궁 진좌(鎮坐: 건립) 10주년 봉축대제 및 기념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일제는 조선인들에게도 서서히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30년대 중반부터는 총독부 고위 관리들도 신사행사에 자주 모습을 나타냈다. 아마도 이는 구관조사, 풍속조사, 특히 무속조사 등의 결과가 나오면서 무속과 신사정책의 연결가능성이 본격

7) 식민지시기 전쟁사자에 대한 추모행위와 추모의례를 다룬 정호기의 연구가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경성호국신사에서 있었던 다양한 행사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신사설치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해방 후 처리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정호기, 2007『전쟁사자 추모공간과 추모의례』,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8) 호국신사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인데 아마도 전시체제기에 대한 자료부족이 한 원인일 것이다. 손정목, 1996, 앞의 책, 605쪽.

9) 용산의 월남인 정착촌에 관심을 가진 선구적인 연구는 이문웅, 1966『도시 지역의 형성 및 생태적 과정에 대한 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해방촌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월남민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귀옥, 1999『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참조.

적으로 제기된 것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sup>10)</sup> 일본인들 자신도 인정하듯이 신도는 일본군대와 창기와 더불어 해외의 독특한 일본의 식민지 문화를 구성했으므로 전후 미군에 의해 집단적으로 일본으로 퇴거되었다.<sup>11)</sup>

한편 1936년 8월 1일 자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은 신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되었는데 이에는 신사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조선 내 정신적 통일을 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 핵심은 각 도에 국폐소사(官幣小社)<sup>12)</sup>를 하나씩 설립하고 각 면에도 신사를 하나씩 두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이를 “숭경의 중심을 확립해서 민심의 귀추를 바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sup>13)</sup> 그 결과 경성신사와 부산의 용두산신사(龍頭山神社)가 관폐소사로 승격되었다.<sup>14)</sup>

한편 1936년 8월 5일에 새로 식민지 조선에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은 국체명징, 만선일여, 교학진작, 농공병진, 서정쇄신 등 5대 강령을 발표했는데 국체명징은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신도체제의 정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는 전임 우가키 총독의 신사확대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다만 관폐대사로 부여신궁(扶餘神宮)이 새로 건립될 것이 예측되었다. 1937년 5월 15일에는 대구신사, 평양신사가 국폐소사로 승격되었다.<sup>15)</sup> 이후에도 광주신사, 강원신사(1941), 함흥신사, 전주신사(1944)등이 국폐소사로 선정되었다. 해방 이전 관폐대사로 총 2개, 국폐소사로 총 8개의 신사가 각 지역의 주요도시에 설립되었다.<sup>16)</sup>

한편 1937년 7월 7일,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대중국 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중국본토에 대한 무력도발, 즉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10) 최석영, 1997『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 창출』서경문화사, 127쪽.

11) 大藏省管理局, 1947『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朝鮮篇 上(서울 : 高麗書林, 1985 影印), 제7장 “教育文化政策とその實績”, 64쪽.

12) 관·국폐사는 1871년에 실시되었는데 관폐사는 역대 천황·황족을 모시는 신사로서 황실에서 관리했고, 국폐사는 지방관이 제사를 관장했다. 각각 대·중·소 세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1872년에는,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인물을 모신 신사를 ‘별격 관폐사’로 지정하였다. 신궁은 모든 신사의 정점에 있는 신사였다. 이원범 옮김(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지음), 2002『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신흥종교』, 도서출판 소화, 26-27쪽.

13) 朝鮮總督府, 1940『施政三十年史』, 京城: 朝鮮總督府, 776쪽.

14) “昭和11年8月1日左ノ神社ヲ國幣小社ニ列セラルル旨 仰出サル,”(朝鮮總督府告示第434號), 『조선총독부관보』, 1936년 8월 1일자 호외(조선총독부 관보활용시스템, [http://gb.nl.go.kr/gb.aspx?id=GB\\_19420925\\_CA4699\\_G0019](http://gb.nl.go.kr/gb.aspx?id=GB_19420925_CA4699_G0019), 이하 URL 생략함).

15) “昭和12年5月15日左ノ神社ヲ國幣小社ニ列セラルル旨 仰出サル,”(朝鮮總督府告示第316號), 『조선총독부관보』, 1937년 3월 15일자.

16) 1945년 6월말까지 전국의 신사(神社)는 79개, 약식 신사에 해당하는 신사(神祠)가 1,141개에 달했다. 신사숫자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손정목, 1996 앞의 논문, 605-607쪽.

한반도가 중일전쟁의 지원을 위한 후방이 되면서 총독부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물적, 인적,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생겼다. 일제는 중국 본토에서 중국의 저항을 맞아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면서 후방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조선인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동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38년 4월 19일 미나미 총독이 주재한 도지사 회의 이후부터는 '내선융화(內鮮融和)'라는 말보다 '내선일치(內鮮一致)'라는 공세적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sup>17)</sup>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수상의 1938년 11월 3일, 일본, 만주국, 중국(日滿支) 3국의 '선린우호(善隣友好) · 공동방공(共同防共) · 경제제휴'를 표방한, 이른바 '동아신질서건설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는 물론 삼국의 경제블럭화를 통한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정책을 보여주는 바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에서 본격적인 '동화정책'이 실시됨을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1938년 4월 초 조선인들은 지원병으로 일본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제 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이전에 구별되어 사용되었던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학교명이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등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므로 징병제, 의무교육, 총력전체제동원이라는 총독부의 전시동원에 대해 조선인 엘리트들은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기도 했다.<sup>18)</sup>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9년 봄, 일제는 산업생산력확충 등 전시경제의 확립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의 일원적 통제를 위해 충남 부여에 국폐대사인 부여신궁을 건립하려고 했다.<sup>19)</sup> 이는 당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강화, 지원병의 증원, 내선일체와 황도정신의 선양 등의 사업과 함께 새롭게 제기된 것이었다.<sup>20)</sup> 중일전쟁 이후 급박해진 정세 속에서 일제 당국은 신사의 정비를 통해 조선인들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면서 전시체제기로 사회 체제의 정비를 가속화했다.<sup>21)</sup>

17) 손정목, 1989「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340쪽.

18) 예를 들면 1939년 6월 1일, 「徵兵・義務教育・總動員 問題로 軍部와 總督府 當局에 民間有志가 問議하는 會」, 「삼천리」11/7참고.

19) 부여신궁의 건립배경과 동원양상에 대해서는 손정목, 위의 책, 8장「부여신궁 조영과 소위 부여신도 건설」참조. 손정목이 지적한 대로 부여신궁 건립은 당시 부여읍에 대한 도시계획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부여신궁의 건립의도, 즉 고대 한반도의 백제와 일본 왜와의 깊은 관련성을 이 시기 불어음으로써 '일선융화'를 꾀하려고 한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小笠原省三 編, 1953「海外神社史」, 上 東京: 海外神社史編纂會, 196-201쪽. 한편 부여신궁은 해방될 때까지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20) 「道知事會議에서 總督 南次郎이 행한 訓示」, 「조선총독부관보」, 1939년 4월 19일 자.

21) 전시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에 대해서는 山口松一, 1998「戰時期朝鮮總督府의 神社政策-「國民運動」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36참조.

중국전선의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는 전선이 교착상태에 이르면서 일본군대내에서 사망자가 이전과는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sup>22)</sup> 전쟁에서사망한 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쇼콘샤[招魂社](이하 초혼사)가 수행했고 이 제도의 정점에 야스쿠니[靖國]신사가 있었다. 그런데 사망자수가 늘어나면서 지방의 초혼사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육군성과 해군성이 관리하는 야스쿠니를 제외하고는 일본내 초혼사는 대부분 그 법적 지위와 성격이 애매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내무성 신사국은 1938년 11월 25일에 회의를 개최해서 신사제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일본 본국의 130개에 달하는 초혼사를 호국신사로 개칭할 것을 결정했다.<sup>23)</sup> 그 결과 1939년 3월 14일자로 관계법령이 반포되어서 각 지방에도 호국신사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리하여 총독부와 일본정부는 경성과 함경북도 나남, 두 곳에 호국신사(護國神社)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sup>24)</sup> 당시 나남에는 일본 제 19사단, 경성에는 제20사단이 각각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에 호국신사를 설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호국신사건립은 앞서 언급한 부여신궁이 건설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결정되었다. 그리고 두 호국신사는 부여신궁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무성이 주도했다. 이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가 육군과 해군성에 의해 관리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건립비용을 일반인들에게서 대부분을 충당해야 할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무성, 특히 지방과(地方果)의 주도하에 인력과 재정동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두 곳에 사단본부가 있었으므로 호국신사를 설치하는 것은 군인사망자들의 소속을 생각할 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관계자, 조선군사령관, 헌병사령관, 그리고 관계 도지사 등이 총독부 제2회의실에서 1939년 3월 30일에 만나

22) 중일전쟁의 사망자 수는 188,196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현혜·이규태 옮김(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지음), 2002 「야스쿠니신사」, 도서출판 소화, 26쪽 참조.

23) 「초혼사명칭은 호국신사로 개칭」, 『동아일보』 1938년 11월 26일 자([http://www.history.go.kr/url.jsp?ID= NIKH.DB-np\\_da\\_1938\\_11\\_26\\_0110](http://www.history.go.kr/url.jsp?ID= NIKH.DB-np_da_1938_11_26_0110)), 이하 대부분의 신문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아래의 동 신문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음을 밝혀두고 지면관계상 인터넷상 주소(URL)도 생략한다.

24) 이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 1940, 앞의 책, 777쪽.

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세웠다.<sup>25)</sup> 그리고 당시 일본내무성소속의 신사건설 기사가 방문하고 부여신궁과 호국신사조영문제를 다루는 총독부 고위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는 사실<sup>26)</sup>은 일본 내무성과 조선총독부 고위층과의 업무협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정부와 총독부의 호국신사건립결정에 따라 총독부는 정무총감을 필두로 신속하게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하여 구성된 것이 바로 총독부 관리, 서울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호국신사봉찬회(護國神社奉贊會)였다. 창립총회는 1939년 4월 21일에 총독부 제 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참석자는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朗), 각도지사, 총독부 각국과장 등 51명에 해당되었다.<sup>27)</sup> 이 봉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간사회(幹事會)였는데 여기에는 내무국장과 총독부 과장들, 19, 20 두 사단의 부관(副官), 해군의 황실과 연락책임 고요 카카리(御用掛) 등이 출석했다. 이 간사회가 1939년 6월 30일 총독부 제3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예산과 재정할당 등을 확립한 후 봉찬회 평의회에 회부하여 결정했다.<sup>28)</sup>

하지만 예산 상정과 건설과 관련된 구체안은 1년이 지난 1940년 여름이 되어서야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 7월 5일 다시 총독부 제3회의실에서 봉찬회의 간사회가 개최되어 예산 및 노동동원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sup>29)</sup> 동년 7월 18일에는 봉찬회 평의회가 조선호텔에서 개최되고 여기에서 건립부지와 재정모금이 확정됨으로 호국신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30)</sup> 평의회는 11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되었으므로 매우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고 사실상 간사회, 즉 총독부 내무국 측이 주요 안건을 준비하고 모임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경성호국신사의 건립부지로는 경성 삼판통 용중 리산(京城三坂通龍中裏山), 즉

25) 「護國神社御造營에 三十日創立協議 - 具體的事項을 打合」, 『매일신보』 1939년 3월 28일 자(한국언론진흥재단, [http://gonews.kinds.or.kr/OLD\\_NEWS\\_IMG3/MIN/MIN19390328v00\\_02.pdf](http://gonews.kinds.or.kr/OLD_NEWS_IMG3/MIN/MIN19390328v00_02.pdf)) 이하 동신문의 URL도 생략한다; 「호국신사 경성, 나남에」, 『동아일보』, 1939년 3월 28일 자.

26) 「神社計劃으로 角南技師가 來城」, 『매일신보』, 1939년 3월 28일 자.

27) 「護國神社設立 奉贊會組織-總費用七十萬圓計上」, 『매일신보』, 1939년 4월 22일 자.

28) 「護國神社奉贊會 奉贊會組織-總費用七十萬圓計上」, 『매일신보』 1939년 6월 28일 자; 「護國神社 奉贊의 幹事會 開催」, 『동아일보』, 1939년 6월 28일 자; 「護國神社創立」, 『매일신보』, 1939년 7월 1일 자; 「不遠에 京城 羅南에 護國神社를 創立 幹事會에서 原案作成」, 『동아일보』, 1939년 7월 1일 자.

29) 「護國神社奉贊會 五일에 幹事會를 開催」, 『동아일보』, 1940년 7월 2일 자.

30) 「護國神社建費一部 誠熱의 獻金募集」, 『동아일보』, 1940년 7월 17일 자.

31) 「護國神社 御造營 具體案을 決定 今日奉贊會 評議會」, 『동아일보』, 1940년 7월 19일 자.

당시 용산군부대 옆에 자리한 용산중학교의 뒤편으로 오늘날의 용산고등학교 뒤 언덕이었다. 남산은 천명산(天明山), 당시 주소로 함경북도 청진부 생구정(咸鏡北道 清津府 生駒町)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두 신사는 각각 1943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설립되었다.<sup>32)</sup> 경성의 호국신사의 위치는 당시 주소로 경성부 용산구(區) 용산정(町) 한강 통 산 2-1의 내부의 약 21,971평에 해당하는 매우 넓은 공간을 차지했다.<sup>33)</sup> 오늘날 이 지역은 보성여자중·고등학교와 교회, 성당 및 주택지 등으로 들어차있다.

한편 재정문제에서 두 호국신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잡혀있었던 것이 70만원이었는데 이 중 20만원이 국고보조이고 나머지 50만원은 일반인들로부터 '헌금' 형식으로 거두어들이 계획이었다.<sup>34)</sup>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비용이 증가해서 각 신사당 국비가 15만원씩, 공동단체 및 기타 기부금으로 각각 40만원씩, 총 110만원으로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 대사업이 되었다.<sup>35)</sup> 이 사업의 규모는 전시체제 기임을 고려할 때 매우 큰 것이었다.

일제 당국은 식민지시기 다른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강요'된 헌금을 통해 식민지인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총독부 당국은 관공서, 즉 도, 읍, 면 등의 부호와 함께 관공리들에게 헌금을 각출했고 특히 재정 확보의 구체적인 안을 세우는데 총독부 내무국 지방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sup>36)</sup> 그러므로 이 사업에 대해 당시 경성호국신사운영의 이사진에 해당하는 송경자(崇敬者) 총대(總代)<sup>37)</sup> 중 한명이었던 윤치호는 다음과 같이 총독부의 헌금 각출(釀出)에 대해 혹평했다.

농사가 완전히 실패하는 바람에 내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을 것 같다. 사정이 이런 데도, 당국은 이 가뭄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의연금이 무자비하게 쌓여

32) 위의 기사.

33) "京城府所在陸軍所管財産管理換ノ件," 朝鮮總督府一拓務省, 1940년 6월 10일(관리번호 C01002325600), 아시아역사자료센터([www.jacar.go.jp](http://www.jacar.go.jp)).

34) 앞의「護國神社設立 奉讀會組織 總費用七十萬圓計上」기사.

35)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777쪽. 이 책이 출판된 것은 1940년 10월 1일 이므로 조선신공관련 예산이 확정된 후이다.

36) 「護國神社造營에 平南勤勞報國隊들이 奉仕作業-官公吏도 誠金釀出」, 『매일신보』, 1939년 6월 13일.

37) 1943년 10월 29일 즉, 진좌제를 앞두고 호국신사 송경자 총대장은 林繁藏이었고 일본인들 외에 조선인들로는 한상룡, 윤치호(伊東致昊), 이진호(李家軫鎬) 등이 확인된다. "京城護國神社掌候補者資格銓衡ノ件," 1943년 11월 10일 (昭和十八年度神社人事關係綴), 국가기록원(관리번호 CJA0003724), 995쪽.



만 가고 있다. 국채가-이율리 3.5퍼센트인 지나사변 국채가-강매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30만원을 들여 경찰관 관사를 지으려고 10만원을 모금하고 있다. 종로경찰서를 재건축하려고 더 많은 금액을 모금할 것이다. 전몰장병의 영령들을 모실 신사를 서울과 나남에 하나씩 짓는 데도 의연금이 징수될 것이다(강조: 필자).<sup>38)</sup>

즉, 윤치호는 총독부의 재정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국채라는 형식으로 혹은 의연금이라는 형식으로 조선인들, 특히 지주나 엘리트들에게 강요될 것이라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한편 재정만이 아니라 호국신사의 건립에는 조선인들의 막대한 노동력 징발이 '근로보국대' 라는 이름으로 감행되었다. 여기에 참여할 인력의 동원은 서울이 있는 경기도나 나남의 함경북도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다. 예를 들면 평안남도의 학생 및 청년단으로 하여금 근로보국대를 조직해서 부여신궁이나 호국신

사 건립에 노동력을 투입하는 안이 총독부와 각 도에 의해 구상되었다.<sup>39)</sup> 결국 1940년 7월 21일 이후부터 경기도내 중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동원해서 신사부지를 조성하는 작업을 시작했다.<sup>40)</sup> 이는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생색내는 재정투입, 서울지역 유지들의 '현금', 그리고 조선인들의 노동력투입에 힘입어 경성호국신사는 1940년 10월 26일

〈사진 1〉 경성호국신사 진좌제

京城護國神社鎮座祭



※ 출처: 『朝鮮』(朝鮮總督府), 제343호(1943년 12월호).

38) 김상태 편역, 2001『윤치호일기, 1916-1943-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1939년 9월 3일 자, 443쪽.

39) 앞의『護國神社造營에 平南勤勞報國隊들이 奉仕作業-官公吏도 誠金贖出』기사.

40) 앞의『護國神社奉贊會 五日에 幹事會를 開催』기사.

기공되어서 1943년 11월 26일에 완공, 진좌제(鎮坐祭)가 개최되었다.<sup>41)</sup> 총독부로서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건립에 조선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전쟁의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정책이었다.

한편 경성호국신사는 총독부 측으로부터는 1943년 10월 20일 자로 신사창립허가를 받았다.<sup>42)</sup> 총독부 내무국 지방과는 기민하게 신직(神職)인 사사(社司) 및 사장(社掌) 등을 내정해두고 경성호국신사 승경자 총대의 추천 형식으로 임명했다. 임명된 인사들은 주로 신사직 인사 교육기관인 황전강구소(皇典講究所) 조선분소(朝鮮分所)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sup>43)</sup> 대표적으로 경성호국신사의 신직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스즈카와 모토아키(鈴木元章)를 들 수 있다. 한편 경성의 호국신사와는 별개로 전시동원으로 인한 인력, 기자재, 및 재정부족 때문에 나남호국신사와 부여신궁은 해방될 때까지 완공되지 못했던 것 같다.<sup>44)</sup>

### III. 경성호국신사의 활용과 대중동원

조선내 호국신사의 건립은 당시 조선에서도 일본 내 호국신사의 정점에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지식의 보급을 수반했다. 즉 야스쿠니신사는 “전일본국민의 結晶적인 신사”로서 전몰순국자의 영령이 합사(合祀)되어 국민들의 정신을 통일하는 중요한 기능을 했다.<sup>45)</sup> 그러므로 조선 내에서 호국신사의 창립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선전되었다. 특히 조선에서의 호국신사의 창건은 1943년에 반포된 조선인징병령, 즉 1944년 1월 부로 조선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는 안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징병령 반포후 전선에 참가해서 사망할 조선인 병사들을 위령하는 것을 준비해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호국신사 임주상량일(立柱上梁日), 즉 진좌

41) 1944 『朝鮮年鑑-1945年度』, 京城 京城日報社, 210쪽. 제신(祭神)은 고(故) 육군소장(杵村久藏命)의 7447명으로 했다. 그리고 각주: 山口公一, 1998, 앞 논문, 203쪽.

42) 『神社創立許可』, 『조선총독부관보』, 1943년 10월 25일(5019호).

43) 앞의 『京城總國神社社掌候補者資格銓衡ノ件』, 993-996쪽.

44) 『朝鮮年鑑』1945年度, 210쪽; 손정목, 1989 앞의 책, 367쪽. 그러나 나남의 호국신사도 1944년 10월 5일 자로 총독부로부터 신사설립 허가를 받았다. 『神社創立許可』, 『조선총독부관보』, 1944년 10월 11일(5307호).

45) 鈴木元章, 1942. 6 『靖國神社 이야기』, 『半島の光』55호,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刊, 11쪽.

제 전의 완공일을 맞아서 당시 조선신궁에서 일하던 스즈카와 모토아키의 아래의 언급은 당시 일본 당국이 이 신사를 통해서 기대하던 바를 잘 보여준다.

그런즉 徵兵制度가 實施된 오늘날, 우리는 이 護國神社와 더한층 김흔 因緣을 가지게 되겠거니와 이것이 完全히 造營되는 날에는 半島臣民의 忠君愛國의 精神의 發露는 이 護國神社에 合祀되어게신 護國의 英靈에게 祈願과 感謝의 至誠을 다하므로 因하여 表現될 것이며 一便, 熱烈한 崇敬으로 社願의 繁榮을 期한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필자: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sup>46)</sup>

즉,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전선에서 조선인 사망자들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조선인 사망자도 일본 내 야스쿠니 신사와 동시에 경성호국신사 혹은 나남호국신사에 합사(合祀)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조선의 신사의 총진수(總鎮守), 즉 신사체제의 가장 위에 있었던 남산의 조선신궁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제 국민들의 천황가와 일본 국체에 대한 관념을 주조하는 신사숭경(神社崇敬)의 교육도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42년부터 매년 4월 2일이 권학제(勸學祭)의 날로 정해져서 조선신궁에서 소학교와 보통학교의 신입생이 황국신민서사를 통해 “修身의 本”을 닦는 장소가 되었다.<sup>47)</sup> 그렇지만 경성호국신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직도 조선신궁이 전쟁사망자에 대한 추모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1943년 말에 건립된 경성호국신사는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으로 출발했다. 그러므로 이전의 각종 지역 사찰과 경성신사, 조선신궁 등이 행하던 전사군인들에 대한 추모기능을 흡수하면서 일본군인들만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중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인사들의 추모행사와 합사제가 이곳에서 거행되기 시작했다.<sup>48)</sup> 아래의 표는 『매일신보』에 보도된 것으로 경성호국신사가 완공된 직후부터 이 신사에서 개최한 주요행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국신사

46) 鈴川元章, 1943. 9 「護國神社 御造營에 對하여」, 『半島の光』69호, 13쪽.

47) 大藏省管理局, 1947, 앞의 책, 60쪽.

48) 정호기, 2007, 앞의 논문, 387쪽.

〈표 1〉 경성호국신사에서 개최된 주요행사

년월일	행사명	행사내용	참석자 및 기타
1943.11.26-28	완공식 및 봉축제	7,447명 영혼 봉안	조선총독, 군사령관, 총감, 관할 구역 10명의 도지사 등.
1944.3.8	육군기념일 행사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군사령관, 정무총감, 관계 부대, 민간인 등
1944.3.28	유아 참배행사	전쟁사자 자녀 참배	정무총감, 학무국장, 경기도지사 등
1944.4.3	제국재향군인회 경성부내 연합분회 결성식	경성연합분회의 해산과 각 구별로 연합분회 결성	
1944.4.20	춘계예제		조선총독, 군사령관, 정무총감, 관민 등.
1944.6.20	오하라이식(大祓式)		경성사단장, 경성부윤대리
1944.8.8	조선총독 참배		조선총독
1944.10.22	무운장구 기원제	일본군의 안녕과 승리 기원	군사원호회 조선본부장, 학무국장, 일본군 참모장, 경기도지사 등
1944.10.26	추계예제(합사제의)	전사자 명복기원	경성사단장, 군사령관, 정무총감, 유족 등.
1944.11.24	신상제(新嘗祭)	오곡의 풍양(豊穰)기원	학무국장, 경기도지사, 국민총력조선연맹 차장 등
1945.3.27	유아 참배행사	전쟁사자 자녀 참배	군인원호회 조선본부 주최
1945.4.26	전승기원제	군인원호운동주간 행사	경기도와 경성부 주최
1945.4.30	춘계예제	추모행사	조선총독, 군사령관, 경기도지사 등

※ 출처: 정호기, 2006『전쟁사자 추모공간과 추모의례』,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389쪽.

에서 있었던 행사를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조선총독을 위시한 총독부 고위층은 경성호국신사에서 개최되는 전몰자 추모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경성호국신사의 위상을 보여준다. 둘째, 경성호국신사는 전사자 추모만 아니라 군인원호나 재향군인회 등을 위한 집회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셋째, 군인원호와 관련되어 군사원호회 조선본부 주최로 전몰장병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경성호국신사는 “명실상부한 추모의례의 공간이자, 전쟁을 기념하는 행사의 공간”이 되었다.<sup>49)</sup> 즉 이 장소는 총독부와 군인들,

49) 위의 글, 390쪽.

그 유가족 등과 관련된 일본 제국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었으므로 해방 후 남한사회에 밀어닥친 민족주의와 반공의 열정속에 이 지역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억될 필요가 없는 곳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 IV. 해방 후 호국신사일대의 변화

해방 이후 서울에는 수많은 전재민(戰災民)과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1946년 3월에 있었던 북한의 토지개혁은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을 남한으로 내려가게 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울로 주로 몰려들어서 일본인들이 남긴 가옥이나 건물들을 접수했는데 이들 전체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평안북도 선천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서북지역인들은 남산의 남쪽, 오늘날의 용산동 2가에 해당하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했다. 용산동 2가는 해방 이전에는 오늘날의 후암동(厚岩洞)과 이태원동(梨泰院洞) 등의 일부였다. 그런데 해방 후 유입인구의 증가로 용산동이 탄생되었는데 이 지역을 통칭해서 최근까지도 '해방촌'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인들로서 오늘날 '해방촌'에 준비한 교회시설의 건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 지역 중 신흥동 일대가 경성호국신사 자리에 해당된다.

남산의 남쪽 기슭, 즉 후암동 일대에는 원래 일본인 주택과 군장교 숙소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북한과 해외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했다. 미군정 측은 1946년에 이들을 현재의 용산동 일대로 옮겨버렸다. 그리고 현재의 신흥동, 즉 경성호국신사터에는 영락교회 측이 주선해서 선천인들이 중심이 되어 천막 40여개를 빌려서 치고 400여 가구가 들어오게 되었다.<sup>50)</sup> 이후에 호국신사 주변의 인구는 서북인들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서 1949년 4월에는 1천여 세대, 6,000명 정도의 전재민(戰災民) 혹은 귀환동포<sup>51)</sup>가 천막을 짓고 생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 지역민들과 공

50) 이문웅, 1966, 앞의 논문, 22-25쪽; 영락교회, 1983『영락교회 35년사』,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82쪽.

51) 이연식은 해방 후 남한으로 유입인구의 발생이 식민통치의 붕괴, 2차 대전의 종결, 연합군측의 정책 등에 따른 것이므로 이들을 '전재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귀환동포'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연식, 2003『해방 직후 서울로 유입된 귀환동포의 주택문제』, 『典農史論』9집, 93-100쪽.

식적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일대를 용산구 후암동 서부동회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했다.<sup>52)</sup> 후일 서부동회는 신흥동(新興洞)이 되었고 동부동회는 용산동이 되었다. 대체로 신흥동은 1966년 당시도 서북지역인들이 67.3%에 달했고 이 중 다수는 평안도 출신들이었다.<sup>53)</sup> 그리고 이 지역 거주자들은 1966년 당시에도 약 27.9%가 기독교계통의 신자들이었고 서북지역인들의 경우는 더욱 그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선천인들은 중구 저동의 영락교회를 출석한 경우가 많았다.<sup>54)</sup>

당시 이 일대는 용산의 군부지와 호국신사의 자리였고 언덕 위였기 때문에 군사전략상 용산 군부대 일대를 내려볼 수 있는 중요한 지대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군부대가 이 지역을 사용할 것이므로 이 지역 거주민들을 퇴거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기도 했다.<sup>55)</sup> 그리하여 서울시가 이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sup>56)</sup> 결국 한국전쟁 이전에는 쏟아져 내려온 월남전재민들을 내쫓을 수 없었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sup>57)</sup> 이는 월남기독교인들의 대정부 교섭력의 제고라든가 현실적으로 주택난의 심화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이 일대가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1950-60년대에도 여전히 '해방촌'은 가난과 삶의 모순으로 점철된 지역으로 그려진다. 이 지역은 1950년대 말의 소설『오발탄』의 주인공 송철호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등장한다. 한 회계사무소에 다니는 주인공 송철호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의 피로에 한껏 더욱 무거운 무게로 다가온 것은 그의 가족의 상황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북에서 내려온 인물로 “벽을 향해 돌아누워서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리를 두고 가자 가자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함께 거주하는 남동생은 군인출신으로 실업자의 한 사람이었다. 또한 여동생은 미군과 연

52) 「南山麓의 '解放村' 正式으로 認定-厚岩洞 西部洞會로 새 出發」, 『조선일보』, 1949년 4월 21일 자.

53) 동의 연혁과 서북인들의 인구변동에 대해서는 이문웅, 1966 앞의 논문, 23-25, 27쪽 등.

54) 이문웅, 위의 논문, 24-25, 35-41쪽; 서북지역인들과 영락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락교회, 1983, 앞의 책, 62-106쪽 참조.

55) 「解放村의 天餘世帶 未久에 撤去命令」, 『조선일보』, 1949년 10월 8일 자; 「그럴리는 萬無-解放村撤去說에 軍側談」, 『조선일보』, 1949년 10월 9일 자; 「軍機 上 부득이 철거, 거주자 구제대책 협의」, 『자유신문』, 1949년 10월 8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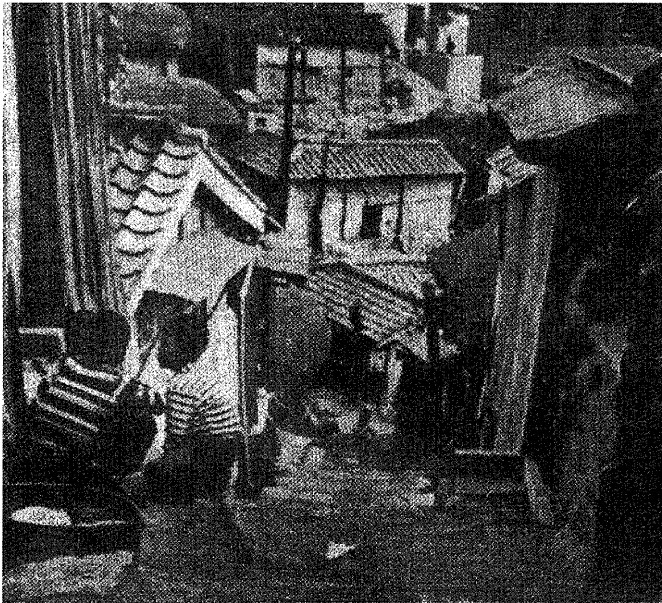
56) 「現場을 調査-解放村問題等에 李市長談」, 『조선일보』, 1949년 10월 13일 자.

57) 이는 황병주가 주장한 해방 후 전재민과 관련된 '민족담론'의 위력일 수도 있겠다. 황병주, 2000 「민군정기 전재민구호(救護) 운동과 '민족담론」, 『역사와 현실』, 35 참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든가 해방 후 남한 내에서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성장 등의 복합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애를 하면서 가족들에게서 부도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런 해방촌의 주인공을 둘러싼 배경은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자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선 갑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큼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데나 마구 버린 쓰레기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현대 더뎡이 모양 깔렸다. 저만큼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켄트 부대 종이를 흰실로 열기설기 문살에 얹어맨 철호네 집 방문이 보였다.<sup>58)</sup>

〈사진 2〉 1950년대 해방촌 모습



해방촌 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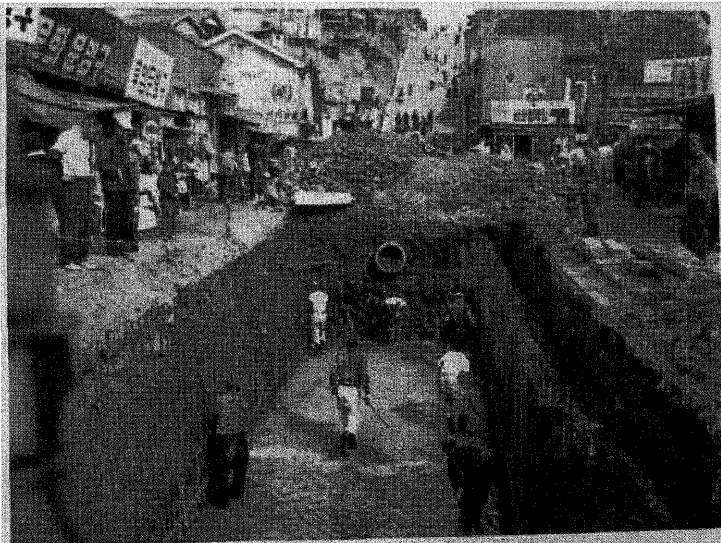
※ 출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서울 3-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출발(1945-1961)』(서울특별시, 2004), 418쪽.

58) 앞 문단의 인용문과 함께 이범선, 1976 『오발탄』, 『오발탄 외-이범선단편선』, 삼중당, 92-93쪽.

‘해방촌’은 해방 후 한국사회의 실존적 모순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위의 사진은 소설에 등장하는 해방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범선은 이러한 실상을 소설의 배경으로 잡았던 것이다.<sup>59)</sup>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촌’은 전재민이 중심이 되어 해방 직후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에도 가건물로 가득차 있었는데 이후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대정부 교섭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하수도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매설되어 갔다. 아래의 사진은 1960년대 초 이 지역일대에 설치되고 있는 하수도 시설의 공사현장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성호국신사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여준다. 이 계단이 속칭 ‘108계단’이다.

〈사진 3〉 1960년대 호국신사가는 길의 변화



후암동 하수도공사(1963)

※ 출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사진으로 보는 서울 4-다시 일어나는 서울(1961-1970)』, 서울특별시, 209쪽.

59) 해방 후 귀환전재민들의 삶을 민족적 삶의 대표성으로 부각시킨 황순원의 다양한 작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안미영, 2010『해방직후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귀환전재민의 의의』, 『현대문학이론연구』40을 참조.



오늘날 이 지역은 해방교회, 해방성당, 신흥교회 등과 더불어 조밀한 주거지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설이 바로 보성여자중고등학교와 송실중고등학교이다. 경성호국신사자리의 일부를 차지한 보성여자중·고등학교는 평안북도 선천에 자리잡고 있었던 학교이다. 이 학교는 해방 이전에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되어 선교사들이 운영권을 조선인 장로교 노회(평북·의산·용천노회)에 운영권을 넘겨준 사연이 있었다.<sup>60)</sup> 그러나 1942년 9월에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보성이라는 이름은 선천여자상업학교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해방 후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보성여자학교를 다시 건립하려는 사람들은 학교 재건 운동을 펼쳤다. 이는 평북의 유서깊은 기독교계 학교를 다시 건립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하여 보성여자중학교는 서북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들인 한경직 이사장, 김양선 목사가 교장(1950년 5월 1일)이 임명되면서 1950년 5월 1일 자로 시작되었다. 보성여자중고등학교의 오늘날 주소는 용산구 용산동 2가 1-1123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보건데 이 자리는 경성호국신사자리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sup>61)</sup>

보성여자중·고등학교의 근처인 용산구 용산동 2-2번지 2천평의 대지에는 한국전쟁 후인 1954년 4월 1일 자로 송실중·고등학교의 건물이 건설되기 시작했다.<sup>62)</sup> 송실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송실학교는 평양지역에서 1897년 미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William M. Baird; 한국명 배위량)에 의해 건립된 평양을 대표하는 기독교학교였는데 1938년 신사참배문제를 둘러싸고 총독부, 조선인, 그리고 선교사들 간의 갈등 속에서 결국 평양 제3중학교로 흡수되어 폐교된 학교였다.<sup>63)</sup> 이 학교는 1975년에 은평구 신사동, 즉 오늘날의 부지로 이사했다.

경성호국신사자리의 일부가 어떻게 보성여자중고등학교 측으로 갈 수 있었을까? 이는 아직 자료가 발굴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해방 후 미군정 측의 적산처리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원래 신도는 국가신도와 교파신도로

60) 안종철, 2010『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63-164쪽; 박혜진, 2010『선천지역 미션스쿨의 지정학교 승격과 학교 인계 과정 연구』, 『역사학연구』(구 호남사학), 38 참조.

61) 보성여자중고등학교 학교연혁 (<http://bosung.hs.kr>) 참고.

62) 송실학교의 내역에 대해서는 송실중학교 홈페이지(<http://www.soongsilm.net>)의 “학교연혁”부분 참조.

용산동 2-2번지가 해방 전 용산구 용산정 한강동 산 2-1, 즉 호국신사자리와 어떻게 관계되는 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인근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63) 식민지시기 송실학교의 폐교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안종철, 2010, 앞의 책, 113-125쪽 참조.

나뉘어져 있었는데 전자는 국가의 의례시설이고 후자는 종교시설이었다. 후자의 경우, 법무국·사법부의 법률심의국은 적산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원칙에 있어서 국제법(이 경우 영미법)과 일본법에 따라 “재정을 원래 목적에 가장 근사치에 있는 계획”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일본 종교시설은 해당 한국인 종교시설에 양도해야 했다.<sup>64)</sup>

하지만 경성호국신사는 남산 인근의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에 건립되어 총독부 내 무국이 관리한 것이므로 한국인 개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었다. 설사 종교시설이라고 해도 신도가 일본의 종교로 인식되는 한, 부지를 넘길 수 있는 종교 교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군정 법률심의국은 일본신사부지를 학교 건립을 위해 “대여(lease)”할 수 있는 지를 두고 법해석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신사재산은 일제시기에 총독부 내무국 측이, 해방 이후에는 군정청 관재처가 관리하므로 신도재산을 학교 측에 “대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해석했다.<sup>65)</sup> 그러므로 서울시가 이 부지를 보성여자중고등학교 측에 “대여”라는 형식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해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측이 서울시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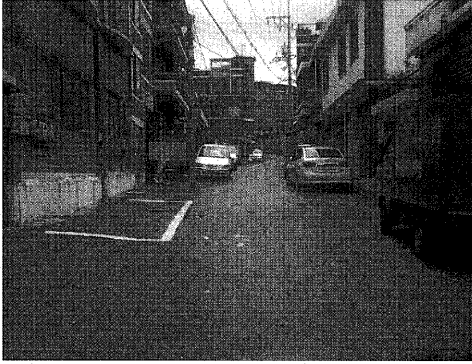
한편 한국전쟁 이후 다시 서울로 올라온 보성여자중고등학교 측은 1958년 10월 9일자로 건물을 확장·신축해서 3층 620평에 해당하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다. 이 신교사는 미북 북장로회 선교부의 2만 달러와 미 8군 민사원조처의 1만 달러 등이 투입되었다.<sup>66)</sup> 결국 경성호국신사자리에는 서북인 중심의 주택지, 보성여자중고등학교, 그리고 각종 기독교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남산 남사면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었다. 향후 이 지역의 필지분할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64) Opinion #503, “Status of Abandoned Religious Shrine-Transfer of Religious Property Custodian,” (1946년 8월 2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97 『美軍政期叅報資料集: 법무국·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1946.3~1948.8)』, 한림대학교 출판부, 154-155쪽; 이러한 원칙에 대한 검토는 안종철, 2009, 앞의 논문, 78-87쪽 참고.

65) Opinion #276, “Leasing of Shrine Property,” (1946년 5월 8일),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97, 위의 책, 80-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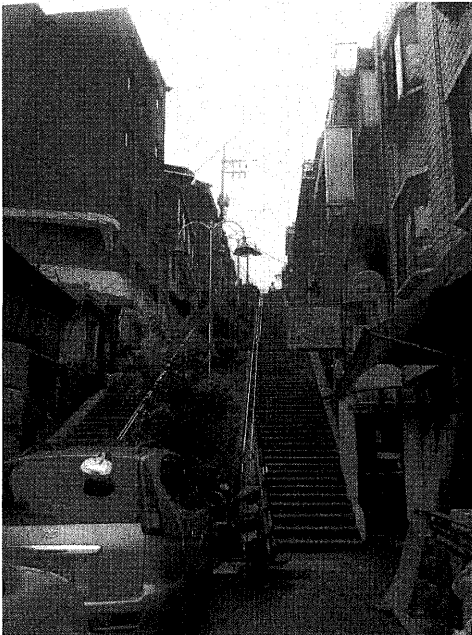
66) ‘9일 신교사낙성식, 보성여자중고교,’ 『조선일보』, 1958년 10월 9일 자. 학교나 교회 부지의 소유권 관계는 관련 자료들이 더 공개되어야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4〉 현재 호국신사자리의 상황



※ 필자사진(2010년 8월 28일)

〈사진 5〉 현재 호국신사계단



※ 필자사진(2010년 8월 28일)

위의 두 번째 사진은 서북인들의 교회인 신흥교회의 인근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해방 직후보다 상하수도 시설은 완비되었지만 여전히 과밀지역이면서도 교회, 성당 등이 많다.

그러나 현재 이 일대는 서북지역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거의 살고 있지 않다. 서북지역인들의 조직력과 생활력 때문에 대부분의 서북인들은 이 지역을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1960년대 이후 주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 의해 채워지게 되었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말부터 구체화되었던 남산의 경성호국신사건설은 1943년 가을에 준공이 되었다. 이 시설은 일본 정부의 재정 보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선인들의 재정과 노동력이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식민통치 막바지의 국가의 대민동원의 특징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례이다. 완공된 호국신사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국가시설로 전시 체제기 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이 시설은 해방 이후 역설적이게도 주로 기독교계 시설들, 즉 교회, 성당, 그리고 학교 등으로 가득차게 된다. 이는 중일·태평양전쟁을 수행한 일본 파시즘 체제와 해방 후 전개될 사회의 상황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경성호국신사터가 구체적인 지면으로 분할되어나간 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들로부터 파생될 몇 가지 문제와 과제를 언급함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남산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남산지역은 북쪽으로는 일본인 거류지, 동본원사(현 적십자사와 남산초등학교 일대)와 경성신사(현 리라초등·컴퓨터 고등학교, 송의초등·송의여자대학), 서쪽으로는 조선신궁(현 남산공원과 과학도서관), 동쪽으로는 박문사(현 신라호텔과 동국대학교 일부)를 중심으로 한 약초여래당(藥草如來堂, 현 미군종교수양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글의 초점인 경성호국신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일제의 국가적 성격, 즉 신도와 불교를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해방 이후 이 지역의 각종 시설들은 주로 한국 민족주의자들의 동상(이승만, 김구, 안중근 등), 도서관, 그리고 학교들로 바뀌었다. 특히 학교들 중에서 불교계 학교도 있지만 송의초등학교 및 송의여자대학, 보성여자중·고등학교, 송실중·고등학교 등에서 보듯이 기독교 측의 학교, 특히 해방 이후 북에서 내려온 신자들이 세운 기관들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해방 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정책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건립되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후의 과제이긴 하지만 해방 이후 남산의 개발과 자원배분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산에 들어서 있는 각종 국가시설들의 건립과 도심속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역사적, 도시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미래의 남산지역의 친환경적인 개발과도 관련되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남산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미래상이 함께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싶다.

접수일 : 2010. 2. 26

심사일: (1차) 2010. 4. 28 (2차) 2010. 10. 20

게재확정일 : 2010. 10. 22

주제어 : 남산, 전시체제, 경성호국신사, 해방촌, 미북장로교, 보성여자중고등학교

## ■ 참고문헌

### 【사료】

#### 1차 사료

##### 『조선총독부관보』

“京城護國神社社掌候補者資格銓衡ノ件,” 1943년 11월 10일 (昭和十八年度 神社人事關係綴), 국가기록원(관리번호 CJA0003724)

“京城府所在陸軍所管財産管理換ノ件,” 1940년 6월 10일, 아시아역사자료센터 (www.jacar.go.jp) (관리번호 C01002325600)

#### 신문·잡지 및 기타

#####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1939. 6. 1 「徵兵·義務教育·總動員 問題로 軍部와 總督府 當局에 民間有志가 問議 하는 會」, 『삼천리』11/7

鈴木元章, 1942. 6 「靖國神社이야기」, 『半島の光』55호,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刊  
\_\_\_\_\_, 1943. 9 「護國神社 御造營에 對하야」, 『半島の光』69호, 朝鮮金融組合 聯合會 刊

김상태 편역, 2001 『윤치호일기, 1916-1943-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 지시기』, 역사비평사

보성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bosung.hs.kr>)

승실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soongsilm.net>)

이범선, 1976 「오발탄」, 『오발탄 외-이범선단편선』, 상중당

### 【단행본】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밀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손정목, 1996『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 손정목, 2003『서울도시계획 이야기』제5권, 한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사진으로 보는 서울 4-다시 일어서는 서울(1961-1970)』, 2005
- 양현혜·이규태 옮김(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 지음), 2002『야스쿠니신사』, 도서출판 소화
- 안미영, 2010「해방직후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귀환전재민의 의의」, 『현대문학이론 연구』40.
- 안종철, 2010『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영락교회, 1983『영락교회 35년사』,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이연식, 2003「해방 직후 서울로 유입된 귀환동포의 주택문제」, 『典農史論』9집
- 이원범 옮김(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 지음), 2002『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신흥종교』, 도서출판 소화
- 정재정·염인호·장규식, 1998『서울근현대 역사기행』, 혜안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97『美軍政期情報資料集: 법무국·사법부의 법 해석 보고서(1946.3~1948.8)』, 한림대학교 출판부
- 菅 浩二, 2004『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 東京: 弘文堂
- 小笠原省三 編 1953『海外神社史』上, 東京: 海外神社史編纂會
- 大藏省管理局, 1947『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朝鮮篇 上 (서울: 高麗書林, 1985 影印)
- 朝鮮總督府, 1940『施政三十年史』, 京城: 朝鮮總督府

## 【논문】

- 김대호, 2004「1910~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건립과 운영」, 『한국사론』 50, 서울대 국사학과
- \_\_\_\_\_, 2008「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경성신사의 운영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승일 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 김승태, 1987「일본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신사문제」, 『한국사론』16, 서울대 국사학과
- 박혜진, 2010「선천지역 미션스쿨의 지정학교 승격과 학교 인계 과정 연구」, 『역사학연구』(구 호남사학), 38
- 손정목, 1996「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신사참배 강요와 기독교 말살정책」,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 안종철, 2009「식민지 후기 박문사(博文寺)의 건립, 활용과 해방 후 처리」, 『동국사학』46
- 이문웅, 1966「도시 지역의 형성 및 생태적 과정에 대한 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해방촌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배, 2006「고종의 장충단 설립과 역사적 의미」, 『도시역사문화』4, 서울시립박물관
- 정호기, 2007「전쟁사자 추모공간과 추모의례」,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 최석영, 1997『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 창출』, 서경문화사
- 황병주, 2000「민군정기 전재민구호(救護)운동과 '민족담론」, 『역사와 현실』35
- 山口松一, 1998「戰時期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国民運動」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36



## ABSTRACT

## The Founding, Usage, and the Post-War Change of the *Kyöngsöng Hokuk Sinsa* [Seoul National Patriotic Shrine] during the 1930-40s

An, Jong Chol

HK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Kyöngsöng Hokuk Sinsa* [Seoul National Patriotic Shrine], which was built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Seoul, Korea during the wartime period. After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in 1937, many military personnel were killed in the war. Since the Korean volunteers were able to joined the Japanese military units in 1938, Koreans were included in the death roll.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change the *Shōkonsha* [Temple for the War Dead] into the *Hokuk Sinsa* (National Patriotic Shrine) in Japan Proper so that the colonial government in Korea decided to construct new shrines for the war dead in the *Namsan* [South Mountain], Seoul and Nanam, the northeastern city for 20th and 19th Divisions each. The former, with the government and “civil contribution,” was completed in late 1943 while the latter was still incomplete at the end of the war.

The shrine was used for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war dead, for caring the military relatives, and for the inculcation of the wartime spirit. However, the site was restricted to the military usage so that the postwar Korea did not have to memorize

the wartime symbol. After the Korean liberation from Japan in August 1945, with the influx of the refugees from North Korea, North Koreans, especially Northwesterners occupied this site for dwellings, erected many makeshift buildings, and bargained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order to secure their stay. With the help of North Korean christians, the site was secured for the Northwesterner's dwellings and for christian schools such as the Soongüi Women's School and Soongsil Men's School. This aptly symbolize the regime change from the Japanese militaristic to Christian/anti-communist postwar Korean regime.

**Keywords** : *Namsan* [South Mountain], Wartime Regime, *Kyöngsöng Hokuk Sinsa* (Seoul National Patriotic Shrine), *Haebangch'on* [Liberation Villag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PCUSA), Posöng Women's School